

여수시, 주거·경제·교육·생활 안정화 ‘총력’

市, 2026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2천230억 투입 159개 사업 추진
청년 유출 방지·국가산단 구조 전환
섬박람회 연계 생활인구 유입 온힘

여수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거·경제·교육·생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총 2천23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2026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주거안정화(행복충전·셋터), 경제안정화(미래충전·꿈터), 교육안정화(지식충전·배움터), 생활안정화(문화충전·놀터) 등 4대 전략 과제로 체계화됐다.
총 15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지역 혁신을 이끄는 신규 사업은 23개, 핵심 사업은 25개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어린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비롯해 남해안 거점 역할 공공기관 유치,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등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도약의 단단한 초석을 다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일자리와 주거 여건 등 구조적 요인으로 3천800명의 청년 인구가 순유출된 상황을 반영해, 청년 역의 유출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여수산단 경기 둔화에 맞서 국가산단 구조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고, 미래 신성장 기업 중심의 투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주거를 연계한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한층 강화해 타 지역 청년들의 발길을 이끄

는 성장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 돌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밀착 지원도 행치며, 아바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 육아문화를 확산해 돌봄 부담을 덜고, 경력을 보유한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해 일·가정양립을 돕는다.

아울러 1인가구와 외국인 주민 등 점차 다변화되는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구 맞춤형 핀셋 정책을 가동한다.

또한 다가오는 10월 제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의 정부 지표 보완에 적극

대응하며, 도농복합시의 특성이 심반영되도록 제도 개선과 특례 반영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계시박람회를 기점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대규모 행사를 연계 개최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역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구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이번 시행계획이 위기 대응을 넘어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매력적인 여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곡성군, 영유아 독서 첫걸음 '북스타트 사업' 본격화

내달 1일부터 미취학 310명 대상
선착순 책 꾸러미 배부...놀이 풍성

곡성군이 지역 내 영유아가정의 건강한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아이들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도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북스타트코리아와 협력해 영유아에게 그림책을 선물하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2026년 북스타트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령에 따라 북스타트, 플러스, 보물상자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관내 미취학 아동 총 310명에게 선착순으로 책 꾸러미를 배부할 계획이다.

꾸러미에는 연령별 맞춤 그림책 2권과 예교백, 가이도북 등이 알차게 담겨 아이들이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령을 희망하는 가정은 신분증을 지참해 곡성어린이도서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출생신고 시 통합 처리 신청을 활용하면 자택으로 편



지난해 개최된 북스타트 오감발달 프로그램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리하게 배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15일에는 우기운 작가를 초청해 그림책 놀이 부모 교육 특강을 진행하며, 11월까지 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가족 단위 독서 행사를 집중 운영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립도서관 누리

집을 참고하거나 곡성군립도서관(061-363-98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밀착 지원을 통해 영유아들의 정서 발달을 돕고 지역 내 건강한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발전의 단단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지역 대표 관광 캐릭터 뽑아주세요"

오늘부터 시안 3종 온·오프라인 조사

담양군은 18일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지역 관광의 새로운 얼굴이 될 '관광캐릭터' 최종 선정을 위해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의 대표 자연자원을 모티브로 신규 개발된 3종의 기본 시안을 대상으로, 주민

과 관광객의 폭넓은 취향을 적극 반영해 확정할 방침이다.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은 시작으로, 죽녹원과 메타랜드 등 주요 관광지 현장 투표를 병행해 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또한 관내 12개 읍·면 주민 대상 설문과 함께 전문 디자이너 40명이 참여하는 심층 평가까지

더해 디자인의 완성도와 대중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군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캐릭터를 선정한 뒤, 오는 4월 중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을 완료해 선착순 무료 배포 이벤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은영 관광과장은 "생태도시 담양의 가치를 최신 유행에 맞게 재해석한 시안들이 준비됐다"며 "주민이 직접 뽑은 캐릭터가 든든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군은 최근 군청 우주출에서 '고흥군 기관·단체장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기관·단체장 소통 행보...현안 공동 대응

고흥군이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우주출에서 올해 첫 '고흥군 기관·단체장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내 기관·단체장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단체장 소개를 시작으로 고흥사랑기부금 50억원 달성 기원 퍼포먼스와 불법도박 근절 홍보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다가오는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비롯해 소록도 관리권 이관 범군민 서명운동, 전입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핵심 군정 현

안을 공유하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협의회 활성화에 헌신한 김성숙 전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에게 재직 기념패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화합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역 현안의 실태를 풀기 위해서는 기관 간 끈끈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23일-4월3일 접수...100호 공급

화순군은 18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4월3일까지 정부24를 통해 '2026년 만원임대주택' 2차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원임대주택은 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과격적인 임대료를 재입대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다.

지난 3년간 2천605명이 몰리며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 사업은 사회 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2차 모집 물량은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50세대 등 총 100세대 규모로 새롭게 공급된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우선순위 기준에 2인 이상 다자녀 항목을 신설했으며, 해당 대상자에게 24평형 10세대 추첨권을 우선 부여해 혜택 범위를 대폭 넓혔다.

대상 주택은 화순읍 광덕지구 일원에 자리해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을 두루 갖춰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접수 마감 후 오는 5월2일 추첨을 거쳐 6월에서 7월 사이 입주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확인 또는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379-363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QR 찍고 선물 팡팡"...광양매화축제 이벤트 마련

축제장 10곳서 즉석 당첨 혜택

광양시가 봄꽃 명소인 광양매화마을의 매력을 알리고 상춘객들에게 색다른 탐방의 묘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개최한다.

광양시는 18일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빛나는 광양매화마을(사진)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모바일탐방 이벤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셔틀버스 승차장을 시작으로 주행사장, 광양매화문화관 등 방문객들의 핵심 동선을 따라 꼼꼼하게 마련된 10개 지점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각 거점에 설치된 광양시 대표 캐릭터 '매들이' 안내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

면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발걸음마다 솔솔한 재미를 더했다.

행운의 당첨자는 주 행사장에 조성된 전용 홍보 부스에서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동일 지점에서의 중복 스캔은 제한된다.

특히 2천여개의 장독대가 어우러진 광양매화마을은 아시아 최고의 봄 풍경으로 꼽히는 등 압도적인 장관을 자랑하며 글로벌 상춘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봄 여행지"라며 "매화 향기 가득한 축제장을 누비며 광양만의 매력과 탐방의 묘미를 동시에 뽐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장성군, 사과·배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 지원

장성군은 18일 "사과·배 재배 310농가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 차단을 위한 예방 약제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총 231ha 면적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주부터 해당 농가에 약제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염성이 강한 화상병은 잎과 가지 등을 불에 탄 듯 검게 고사시키는 병으로, 개화 전 1회와 개화 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적기 방제를 마쳐야 한다.

방제 작업을 완료한 농가는 철저한 이력 관리를 위해 약제방제확인서와 빈 약제 봉지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예방을 실시하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스마트폰 전용 앱 '팜스플러스'를 통해 신속



하게 신고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사진> 김한중 장성군수는 "치명적인 화상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화상병 없는 청정 장성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